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8강 역사의 시대 2

제18강 1교시

◆ 거대 담론의 시대 1

헤겔의 시대는 역사형이상학의 시대였고 거대서사grand narrative의 시대였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거대서사의 몰락**으로 본다.

▶ 참고자료



포스트모던의 조건 (이데아총서 52)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 이삼출 역 | 민음사 | 1992.12.01 | 272p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에서 헤겔-맑스의 변증법 계열과 콩트-스펜서의 실증주의 계열의 구분이 잘 나타나 있다.

▶ 참고자료



이성과 혁명

저자 HERBERT MARCUSE | 역자 정향희 | 출판사 범경출판사

맑스는 헤겔의 사변적 역사철학을 경계하고 역사의 실제 현상들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작업하고자 했다.(예컨대 ‘브뤼메르 18일’에 대한 분석) 그러나 그에게도 헤겔 변증법의 그림자는 강하게 남아 있다. 맑스 역시 발전사관을 견지했다.

▶ 참고자료

브뤼메르18일[dix-huit Brumaire]

1799년 11월 9, 10일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1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總裁政府)를 뒤엎고 독재체제를 구축한 사건.

사적유물론→관념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계급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헤겔의 사변철학을 비판한다.

맑스가 스탈린이 도식한 역사 5단계설(미개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과정을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이것은 ‘속류 맑시즘’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알튀세르 역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 참고자료

알튀세르 [Louis Althusser, 1918.10.16~1990]

마르크스 사상에 구조주의적 해석을 제시한 프랑스 철학자. 《되살아나는 마르크스》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초기의 인간론, 소외론으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사상의 특질이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인식론적 절단에 있다고 주창하였다.



국적 프랑스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알제리

주요저서 《자본론을 읽는다 Lire le Capital》(1965)

맑스가 이야기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등은 그가 유럽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생각은 많은 비판을 낳았다.

헤겔-맑스 전통과는 달리 콩트-스펜서 계열은 실증주의를 내세워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자신감을 표현했다.

콩트는 역사 3단계설을 주창했다. 신학적 시대, 형이상학적 시대, 실증적 시대가 그것이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8강 2교시

◆ 거대 담론의 시대 2

몽트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미래를 낙관했다. 스펜서는 거창한 진화론을 내세워 이른바 ‘사회진화론’을 전개했다.

▶ 참고자료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ism

사회진화라는 말을 최초로 써서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고 한 사람은 H.스펜서이다. 그는 진화를 모든 우주적 현상을 꿰뚫는 법칙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진화를 물질의 집중작용과 운동의 분산작용으로 간주하여 천문·지리·생물·심리·사회 등 각 분야의 진화 법칙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사회학은 사회의 진화를 밝히는 학문이며, 사회에 있어서도 통합과 분화가 동시에 진행하여 단순사회에서 복잡사회로, 나아가서 이중 복잡사회로 진화하는 일반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를 생물유기체와의 유비(類比)에서 파악하여 생물유기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와 기능이 분화하는 한편, 부분이 상호의존적(相互依存的)인 것이 되어 통합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도 저급(低級)의 것이 고급의 것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분화와 통합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C.R.다윈의 생물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사회다윈주의라고 불린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생물진화론의 적자생존(適者生存)·자연도태(自然淘汰)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회유기체 진화의 원동력을 사회도태에서 구하였다. 여기에서 적자생존을 자유경쟁·경제적 자유방임의 뜻으로 전용(轉用)하여,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정당화한 이론이 생겼다.

이 같이 사회진화론은 사회유기체설의 입장에서 사회본위주의(社會本位主義)를 따라 사회의 조화적·점진적 발전을 주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을 정당화하며, 혁명운동을 사회유기체의 존속에 대한 파괴활동으로 보았다. 동시에 사회도태설의 입장에서 개인본위주의를 내세워 생존경쟁·자유경쟁에 의한 사회발전을 주장하고, 현사회에서의 자본가의 지배적 지위를 적자생존의 결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진화론은 전체 본위주의적 입장과 개인 본위주의적 입장에서 동시에 주장되었다.

사회진화론은 동북아 사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양계초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사유를 전개했다.

몽트-스펜서 유의 역사철학은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생각을 가장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유로서 그 후 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말 정도에는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니체는 근대의 거대 담론들을 비웃으면서 그 인간중심적인 성격을 성토했다. 니체는 그의 '계보학'을 통해서 반목적론적인 역사를 전개했다.

계보학[系譜學 genealogy]→ 역사를 목적론적으로 보지 않고 분절로 본다. 니체의 계보학은 가치의 발생과 유래를 추적함으로써 기원과 목적을 신성화하기 위해 가해졌던 폭력과 겹겹이 쌓인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 가치의 '탄생'을 추적함

역사에 대한 거대 담론은 '근대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에야 비판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양차 세계대전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 1

예) velles epoques()

서구 자체 내에서는 구조주의 역사학('아날 학파')이 등장해서 역사에 대한 선형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철학을 구조적인 분석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 구조주의가 사상사적인 의미를 얻는 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작업에서이다.

▶ 참고자료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1908.11.28~]

프랑스의 인류학자로 문화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구조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문화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 랑그와 파를을 신화의 구조를 해명하는데 적용하였다. 주요 저서로 《슬픈열대》 등이 있다.



국적 프랑스
활동분야 인류학
출생지 벨기에 브뤼셀
주요저서 《친족의 기본구조》(1946) 《슬픈열대》(1955) 등

특히 미셸 푸코의 역사 분석은 근대 역사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참고자료

푸코 [Foucault, Michel Paul, 1926.10.15~1984.6.25]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자로 파리대학교 반센 분교 철학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는 한편,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 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1961)와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을 저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시대의 앎[知]의 기저에는 무의식적 문화의 체계가 있다는 사상에 도달하였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언어와 사물》(1966)과 《앎[知]의 고고학(考古學)》(1969)에서 무의식적인 심적 구조(心的構造)와 사회구조, 그리고 언어구조가 일체를 결정하며,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든가, 자아라고 하는 관념은 허망이라고 하는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사상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구조주의 유행의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광기와 문화》(1962) 등의 저서가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동북아에서는 근대성을 비판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의 초극’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의 논리로 나아가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